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5월 19일 (제1254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생각의 차이

똑같은 사물도 보는 시각과 생각에 따라 달 리 보인다. 마치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간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도 달리 보고 생각한 것처럼.

나는 교단에서 제명을 당했고, 이로 인해 많은 매체에서 나를 기사화해서 이득을 취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 지만, 나는 다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 내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광고 덕분이니까. 노이즈 마 케팅도 마케팅 아닌가.

지교회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 교회에 다니던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때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깨려 한다’며 내분이 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교회를 깨는 게 아니라 교회 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끔 나에게 “왜 저런 사람을 쓰 느냐?”고 묻는다. 성격이 과격하고, 다른 사람과도 잘 부딪친다는 것이다. 나도 안 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의 장점만 본다. 굵 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했고,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쓸모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격한 정도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에 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빨간 안경을 쓰면 세 상이 모조리 빨강게 보인다. 내가 그 빨간 안경을 벗기 전에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에서 스스로 벗어나 야 하는 이유다.

부부가 주유소에 갔다. 주유하는 동안 한 청년이 서비스로 자동차 앞 유리를 닦아줬 다. 그런데 남편이 유리창을 열고는, “이봐, 젊은이. 이왕 닦아주는 거 좀 잘 닦지. 여전 히 지저분하잖아.”라고 한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여보, 우리는 깨끗하게 잘 닦였어요. 당신 안경 좀 쥘봐요.” 하고는 남편의 안경을 받아 닦아줬다. 아내가 내민 안경을 받아 쓴 남편은 겹연쩍은 듯 말했 다. “젊은이, 미안하이. 우리는 깨끗하구먼. 내 안경이 더러웠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네 생각이 문제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 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생각을 바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2022년에 완공된 길이 8.9km의 다리 CCLEX Pathway는 세부(Cebu)섬과 막 탄(Mactan)섬을 연결하는 바다 횡단도 로인데, 그 주탑에 십자가 모양이 들어 가 있다. 특히 야간이면 선명한 조명이 들 어와 그 다리가 보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십자가 모양을 볼 수 있어 매우 인상적 이다. 조봉환 세부한인회장의 아내 메리 (Mary Therese Sitoy-Cho)가 코르도바 (Cordova) 현지 시장일 때 완공된 다리 인데 목사님은 이 다리를 보실 때마다 남 다른 인상을 피력하시며 우리에게 꼭 활 영하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세계를 많이 다녀보았지만 십자가가 세

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 을 바꿔라!”고 강조하시며, 반복해서 “할 수 있다! I can do it!”을 외치게 하셨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자기에게 맞는 적 성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목회자 들에게는 리더의 조건을 제시하시며 깨 끗하고 단정하며 부지런히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다. 체육관으로 목사님을 만나 러 온 현지 목회자들의 복장이 너무 캐 쥬얼하다고 느낀 목사님은 먼저 복장부 터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어야 한다고 말 씀하셨다.

“목사는 지도자입니다. 남을 이끌어야 하 는 사람이 추레한 모습으로 다니면 누가

문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 았다. 목사님은 필리핀에 여러 번 다녔지 만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이고 말씀하셨다. “우리 세부교회가 이처럼 부흥한 모습을 직접 목도하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상진 목 사와 사모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20여 년 동안 한 우물만 깊게 파며 세부 예수중심교회를 우뚝 세운 여러분의 목 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듯이 앓을 자리조차 부족할 정도로 부흥했으니 더 넓은 교회로 가야겠습니 다. 우리 꿈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반드 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을 것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부예수중심교회

워져 있는 다리는 본 적이 없다. 세부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우리 세부를 접 수하자!”

작년 세부집회에 이어 약 1년 만에 세부 콜리세움(Cebu Coliseum)에서 열린 이 번 집회는 필리핀을 향한 목사님의 비전 에 분명한 초석을 놓은 시간이었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세부의 영향력 있는 권력 자들이 우리 집회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 다는 소식이다.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합심기도가 구체화 되고 현실로 목도하 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확신한다.

목사님이 총 8회에 걸친 설교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강조하신 메시지가 있다. 집 회를 돕는 리더들, 청소년 봉사자들, 목 회자 그룹, 세부예수중심교회 교인들 모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지도자라면 뭔가 닳고 싶은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어야 따라갈 것 아닙니까? 특히 목사라면 하나 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말과 행 동이 다르면 성도들은 절대 따르지 않습 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나타나고, 삶과 신앙에 본이 되어야 믿고 따르는 법입니 다. 내가 그래서 내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 는 것이 큰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깨끗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를 후 진행된 목회자 세미나에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 복장부터 단정한 모습 이었다. 사람은 좌우간 배워야 한다. 이틀간의 집회를 마치고 세부예수중심교 회에서 진행된 수요일예배는 정말 용신할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입니다. 꿈은 여러분을 버린 적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버린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일랑 당 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면 여려 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필리핀 세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 떻게 펼쳐질지 자못 기대가 된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주 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한은택 목사



목회자 세미나(가비 리조트 대회의실)



세부섬과 막탄섬을 잇는 CCLEX Pathway (십자가가 선명하다)



집회 때마다 쌀을 나눠주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2:1~11)



왜 우리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셨을까?

“10톤짜리 포클레인 사주십시오.” 얼마 전, 기도원 원장이 제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계획하신 일을 해내려면 장비가 크고 좋아야 합니다.”라고 하기에 즉시 사줬습니다. 일하겠다는 데 안 사줄 이유가 없지요. 기도원 원장 말이 맞습니다. 예전에야 일 못하는 놈이 연장 탕 했지만, 지금은 일 잘하는 사람이 연장 탕합니다. 연장이 좋으면 일이 더욱 능률적이고,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미로 온 종일 일하는 것보다 포클레인으로 한 번 푹 파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 때는 중공군이 육탄전으로 밀고 왔었지만, 지금은 드론으로 공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성능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판가를 나지요.

무기 없이 승리할 수 없고
연장 없이 일할 수 없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1:8)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려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기에 좋은 연장은 물론이요, 최첨단의 무기도 필요합니다(엡6:12).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앞에 단서를 다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이므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도 받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야말로 최고의 연장이며, 최첨단 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고전 12:8~10).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는 은사, 곧 권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며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24:49)고 하심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첫 대면에서 ‘성령을 받으라’(요20:22)고 하심도,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고 당부하심도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연장이 배급되기 전에 일하러 나가봐야 능률 제로(0)이고, 무기가 지급되기 전에 움직이면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장 받고, 무기 받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야 세상으로 나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고(행2),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번 세부 집회에서 귀신을 쫓고, 암을 고치고, 소경을 눈 뜨게 한 것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외집회 때 비가 오면 비를 멈추는 것도, 부족한 제가 한 국가의 통치권자를 권면하고, 많은 목회자를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제 힘으로 낫선 나라, 낫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외적 증표요, 성령강림의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일심으로 기도할 때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 모인 자들이 다 방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행10:46).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 중 나를 위한 은사는 방언기도입니다(고전14:4). 저는 하루 4시간, 집회 때면 보통 7시간 기도를 합니다. 이 중 80% 이상이 방언기도입니다. 이 방언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버틸 수 없었고, 지금까지 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세부에 갔을 때 한 목회자가 저에게 ‘어떻게 그 연세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느냐? 건강 비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40년 방언기도가 비법이다. 방언기도를 하면 새 힘이 임하고 나처럼 건강하다.’고 말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패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사28:11~12). 물을 끓이면 그 안에 있던 유해성분이 다 끓어올라 넘쳐 나가듯,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하면 내 안의 나쁜 것들이 다 넘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 내 몸이 상쾌해집니다. 늘 방언기도를 하기에 저는 70을 넘긴 나이지만, 6월 전주 집회를 필두로 베네수엘라 집회, 호주 집회, 몽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고전14:18). 누군가는 그렇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왜 하나고요? 당연히 못 알아듣지요. 방언기도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이며, 악한 것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준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대화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 이니라”(고전14:2). 방언기도는 악한 것들도 해독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암호입니다. 마치 군통신병들이 모스 부호로 ‘또 또 또도또’ 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언은
비밀을 여는 만능열쇠다

방언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만사가 형통하며, 고통과 병과 가난이 물러갈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선물이며(고전12:10),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또한 방언기도는 바다에서는 어뢰탐지기요, 하늘에서는 레이더 관측기요, 땅에서는 지질탐사기 같은 존재입니다. 방언기도를 안 해서 열리는 것이 없고, 안 해서 풀리는 것이 없고, 안 해서 얻는 게 없는 것이지 방언기도를 하면 만사형통(萬事亨通), 난사형통(難事亨通)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5:19)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방법은 늘 방언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불붙은 곳에 계속 기름을 충당하면 절대 불이 꺼지지 않지요? 무시로 방언기도 하면 성령 충만하여 날선 무기요, 잘 갈린 연장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기도가 고치면 성령이 자연 소멸되고, 은사도 녹슬게 됩니다. 녹슨 무기인 줄 모르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이 쳐들어왔을 때 녹슨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갈까요? 녹슨 대포에서 포탄이 날아갈까요? No! 그러니 적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포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매스컴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영적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망하고, 병들고, 죄 가운데 허덕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방언기도하여 성령충만을 얻고, 성령의 은사로 악한 것들을 대항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변화의 최대결림들은 고정관념과 배타적인 생각입니다.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자이신지라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연장과 무기를 지급하십니다. 천상천하 가장 좋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전12:31).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영생에 이르는 길 ::

투자를 배우자

가치투자는 재무적 펀더멘털 분석을 바탕으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전략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드는 1934년 저서 <증권 분석>에서 가치투자 개념을 처음 정의했습니다. 이를 워런 버핏은 “투자의 기본 개념은 주식을 기업 자체라 여기고, 시장등락을 기회로 활용하며,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에 따르면 투자에는 단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하는데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 제1원칙이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곧 비축하기만 한다면 돈을 잃지 않는 제1원칙을 지킬 수는 있지만, 돈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실을 저축에 적용해보면 저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긍정적 요인으로 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지속될 때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상승하는 소비, 임금, 고용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긍정적인’ 수준 이상으로 가속화되면 임금과 고용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화폐가치가 급락하지요. 이것이 바로 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은 대개 상승합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인플레이션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은 저축에

는 부정적이지만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내게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상상하면서 투자과정에 들어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최소연간지출, 남은 투자기간, 투자할 자본, 투자요구수익률, 이 네 요소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먼저 복리의 놀라운 힘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뒤 돈을 두 배로 불러주는 연평균 복리수익률은 24%입니다(72법칙). 투자에서 복리는 벌어들인 돈을 계속 재투자해서 원금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복리로 쌓이며 돈이 스스로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투자원금을 추가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이것이 부를 창출하는 복리의 놀라운 힘입니다. 젊은이들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기간이 길어서 유리하므로 복리로 돈을 불릴 시간이 가장 많이 확보된 투자초반에 더 쓰고 싶은 욕구와 싸워서 가능한 한 투자금을 늘려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자유를 누리기에 충분한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투자를 배우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배우고 실행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돈을 잘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총대를 메라

연초에 오랜 친구들과 만나서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전부터 친구들 간에 한번 보자는 이야기는 자주했지만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총대를 메기로 했습니다. ‘한번 보자’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장소와 일정을 계획한 후 일정을 조율하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과감한 진행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도 있었지만, 의견을 조정하며 추진했습니다. 약속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아 참석을 고민하던 한 친구와는 전화통화를 하고 그 친구 집 앞까지 가서 기다렸더니 친구가 힘을 내서 나와 반가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하겠지만, 바쁜 세상에 각자의 삶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 모이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뜻

을 정하고 이루기 위해 총대를 메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니 결국 원하던 모임이 성사되었습니다. 세상의 일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총대를 메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일단 결단했으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밀어붙여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총회장 목사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우리 교단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먼저 총대를 땁시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성경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준자와 받은 자의 진실

나의 어머니 한송이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 평범하게 공부만 하던 어머니는 스물네 살이 되던 해, 삶에 두 가지 터닝포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여름방학 기간에 있었던 청년대학수련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것, 둘째는 같은 해 11월, 만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아버지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뜨거웠던 어머니는 중매를 통해 처음 만난 아버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며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첫눈에 반한 아버지는 결혼하면 당신을 따라 교회 나가겠노라 약속하셨지요. 결혼 후, 교회에 발 도장만 찍으며 여전히 가진 돈과 명예로 세상과 짝하던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는 7년간 수 없는 밤을 눈물의 기도으로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1988년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가구점에 들르셨다가 원목이 아버지 발등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수술 후에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된 아버지는 88년 11월 총회장 목사님의 부산집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석하신 아버지는 뜨거운 불이 머리

부터 발끝까지 지나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고, 그날로 고침을 받으셨습니다. 항상 저와의 전화 통화 끝에, “진실아, 기도해라. 오직 기도밖에 없어.”라며 기도를 당부하시는 어머니. 믿지 않던 아버지가 전 재산을 팔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까지, 당신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목도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저 또한 총회장 목사님의 오랜 기도가 이루어져 목사 되기를 거부했던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보았기에,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문제를 보고 낙망하고 계시나요?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포기하려 하십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신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김진실 사모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기준!” 학창시절 체육 시간이나 군대 시절 훈련을 받을 때, 운동장 맨 앞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른손을 번쩍 들면서 ‘기준’이라고 외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로 양팔을 벌리거나 앞사람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앞으로 나란히’를 하면서 오와 열을 맞추어 정렬을 한다. 줄을 맞추면서 뒤로 서너 걸음 물러서는 사람, 좌우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사람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이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전체가 우왕좌왕하면서 줄이 흐트러지게 된다. 나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준이 되고 싶다. 물론 인간이기에 삶의 모든 부분이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몇 가지를 나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우선 나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 아플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방법밖에는 모르기로 걱정했다.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준을 보면서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당기는 사람, 뒤로 물러서는 사람, 좌로나 우로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급성 장염에 걸려 식사를 못하시는 권사님 댁에 심방을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사 금세 깨끗해지셨다. 정말 놀랍지만, 그러나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예수님과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8)는 말씀을 기준 삼아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단상에는 1년 365일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표어가 붙어 있다. 매일 새벽 1시까지 기도회가 있고, 총회장 목사님의 20분 설교 영상으로 기도회 마무리를 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는 말씀이 기준이기에 나 또한 그렇게 산다. 또 총회장 목사님은 ‘가든지 보내든지’라고 하셨기에 각자 전도하고, 총회장 목사님의 해외 집회와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한다. 나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삶을 사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기준’에 맞춰 살 것이고, 나중에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그림을 늘 상상한다. 장순천 목사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 귀를 기울이세요 ::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마)

‘시한폭탄 같은 인생’, 총회장 목사님이 비유로 자주 언급하시는 말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와닿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잠27:1)는 말씀처럼 죽음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히 9:27).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뒷전으로 둔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지난 2021년 개봉한 영화 ‘돈룩업(DON'T LOOK UP!)’은 이러한 세태를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천문학자는 우주를 관찰하던 중 엄청난 위력을 가진 혜성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혜성 충돌 확률은 무려 99%.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주인공은 이를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비상사태에 돌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외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혜성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JUST LOOK UP(고개 들어봐)’과와 ‘DON'T LOOK UP(위를 보지 마)’파로 갈라져 싸웁니다. 지구 멸망이라는 재앙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돈을 좇으며, 서로 갈등합니다. 또 온갖 소문과 SNS에 빠져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6개

월 뒤 혜성은 지구와 충돌하고,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세상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선을 두게 만듭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많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의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뜻을 좇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2:17).

전소희
so2eej@naver.com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생방송(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

:: 프롬 인터넷 ::

한 번 더 생각해주는 사랑

오래전 어느 봉사 단체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느라 일주일에 세 번씩 무료로 도시락을 나눠주는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날따라 영하 10도가 넘는 매우 추운 날이었는데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라 그런지 급식소를 찾아온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봉사자들은 도시락 한 개에다 따뜻한 국물을 따로 담아 포장지에 싸서 한 사람에게 한 개씩 나눠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개를 주는 것이 정해진 규칙이었지요. 봉사자들이 열심히 급식을 하고 있는데 남루한 옷차림인 어느 남자아이가 급식대로 다가와 도시락 세 개를 집어 자기 가방에 얼른 담았습니다. 그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절도 행위를 저지르는 아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 처음 봉사하러 나온 초등학교 선생님 여자 봉사자였습니다. 봉사자는 아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절도행위를 하는 것을 본 순간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애! 어디서 감히 도둑질을 하는 거니? 한 꺼번에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먹지를 못하잖아! 왜 어린 나이에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좋은 말할 때 빨리 이곳에 도로 갖다 놔라! 그렇지 않으면 혼을 낼 테니까!” 봉사자는 형사가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해 추궁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큰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빨개진 채 가방 안에 넣었던 도시락을 모

두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고는 찢살같이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는 한 손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밖으로 나와 아이를 쫓아낸 봉사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가난한 동네예요. 그리고 오늘같이 추운 날은 일이 없어 부모들이 일을 못나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족을 대신해서 아빠와 동생을 먹이려고 도시락 세 개를 챙긴 거예요. 저 아이의 아버지는 일하다 사고를 당해 방에서 누워지내고, 엄마는 파출부 일을 하러 다니느라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다보니 장남인 저 애가 도시락 세 개를 챙긴 거라고요. 선생님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에 가족들이 꿈쩍없이 굶게 생겼네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애가 얼마나 효심이 깊고 착한 아이인데요. 가끔 이곳을 찾아와 청소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심지어 설거지도 도와주는 너무나 착한 아이거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주시고 나무라 주세요.” 다른 아주머니의 말이 선생님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순간 부끄러움과 미안한 표정으로 가방에 넣었던 도시락을 꺼내는 그 아이의 서럽고도 슬펐던 눈망울이 생각나자 선생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른 선생님이 아주머니에게 그 아이의 집이 어딘지 알아냈고, 도시락 네 개를 챙기고 사비를 들여 과자와 빵과

라면 등 먹을 것들을 잔뜩 사서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입김이 솔솔 피어나는 추운 방 안에서 세 식구는 이불을 덮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봉사자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아서 너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해...” 뜨거운 눈물이 목을 타고 솟구쳐 오르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도, 아이의 동생도, 그리고 누워있는 아빠도 함께 울었습니다. 모처럼 방 안에는 아이의 가족들과 선생님의 사랑이 뒤엉킨 채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품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은 그 아이의 정식 후원자가 되어 온갖 정성을 다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마침내 날개 없는 천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자신의 판단으로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정죄하기 전에 ‘무슨 까닭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다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눅6:37).

행동하는 스승

연기경력 69년 차 배우 이순재 씨가 출연하는 연극 ‘리어왕’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미수(米壽, 88세)의 나이로 3시간이나 되는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우며, 희로애락이 많고 열정 넘치는 리어왕이라는 캐릭터를 힘있게 소화하였다. 같이 출연하는 많은 젊은 배우들이 있었지만, 그의 흡입력으로 다른 배우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특히 그의 애통하는 독백 장면은 대극장의 관객들이 숨소리까지 죽이며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연기를 쉬지 않고 공연하는 열정이다. 그는 ‘연기는 미완성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도전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말만 하는 스승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제가 다니는 예수중심제자신학원에도 이순재 배우에 비견할 엄청난 스승님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중심교단의 총회장이신 이초석 교수님이시다. 이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과목은 ‘목회 성장학’으로 매번 목회에 성공한 발자취를 알려주시고, 목회 성공을 위해 목사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직접 보여주신다. 이 세상의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지식과 지혜만 알려주지만 예수중심신학원의 ‘목회 성장학’은 목회자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다. ‘목회에 성공해야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목회를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설교와 삶이 같았기 때문이다. 목회는 설교가 끝이 아닌 삶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며 그분의 행적을 들려주신다. 하나님과의 진솔한 기도, 성도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 자신과 함께 하는 목회자 및 직원들을 챙기는 섬세한 손길은 그 어느 성경 인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삶으로 보여주는 목회였다. 또한, 신학교 이사장으로서 신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을 모니터하시고, 해외 집회에 가셔도 신학교 발전사항을 끊임없이 전달해주신다. 이렇게 위대한 스승 앞에 우리 선지생도들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다. 행동하는 스승, 참 스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

송헌혜 생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니라
(잠언 17장 1절)

대가족 속에
사랑과 행복이 싹튼다
핵가족이 좋다는
유혹을 물리쳐라
행복과 사랑의 샘물은
가정에서부터다
-봉우